

# 百葉箱 등 設置로 自然公園植生 관리의 科學化 를...

吳 判 龍

植木の 季節이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自然公園의 一定한 地域에 地方自治團體에서 記念植樹를 권장하는 것을 新聞報道로 듣고 있다. 自生樹種(郷土樹種) 中心의 植栽로 되도록 生態系變化를 안주고 氣候條件에 맞고 管理(枯死防止)에 어려움이 적어야 할 것은 當然한 理致라 하겠다. 이 方面 研究의 泰斗이던 정대현박사가 生存時에 펴낸 「適地適樹論」과 60年代에 成大 이우철교수(現江原大)가 圖表로 全國의 山岳別 높이와 植物을 調査한 이후는 이 같은 어려운 作業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한편으로 어떤 學者는 植生에 관한 研究를 깊이있게 해보려해도 심지어 國立公園의 管理所마저 「百葉箱」이 設置된 곳이 없는 寒心한 實情이라 한다. 公園과는 氣候差가 甚한 隣近 地方測候所서 蒐集된 統計나 그 周邊의 地方官署의 氣象資料로서 公園植生管理에 適用한다는 것은 너무나 非科學的이라 할 수 있다. 公園管理上의 盲點이라 하겠다.

여태까지는 國立公園管理를 地方自治團體에서 委任管理하였지만 오는 7월부터는 公園管理公團에서 管理하게 된 만치 눈에 보이는 環境整理나 探訪客管理도 重要하지만 百年大計를 위한 百葉箱의 設置는 꼭 實現되었으면 한다.

公園마다 꽃피는 時期와 지는 時期, 그리고 丹楓時期를 正確히 統計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現在 갖추어진 公園도 없을 뿐만아니라 關

心마저 없이 지나온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아쉬운대로 溫度計(最低·最高·乾球·濕球)·磁氣溫度計·磁氣濕度計·雨量計·風向計·風速計·地震計·積雪板程度만 具備되고 充實히 記錄保存하는 專門人을 養成하면 되는 것이다.

各管理所備品으로 百葉箱을 꼭 設置하도록 하고 正確한 公園別氣象資料가 마련되길 바란다. 요즘은 國產機器도 잘 生産되고 있다. 예를들면 內藏山에서는 井州市의 氣象資料를 갖고 있고 智異山국립공원 全南管理所서는 求禮郡의 것을 蒐集해서 參考삼는다. 距離와 標高의 差異가 심하니 條件이 맞을 수가 없다.

최근에 智異山경남관리사무소에서 溫度計와 風向·風速計를 장터목山莊에 설치했다는 소리도 있고 細石山莊에는 個人부담으로 溫度計, 風向·風速計를 備置했을 뿐만아니라 아마 無電시설, 앰프, 絶滅燈이 있고 風車發電시설까지 하려하고 있다한다.

높은 山莊에 設置된 器資材에서 蒐集되는 資料도 管理所 擔當직원이 熱心히 그리고 正確히 蒐集한다면 公園의 植生管理의 科學化는 勿論 遭難豫防등 有益한 統計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生生한 科學資料가 每年 꾸준히 集計만 되면 斯界의 權威者들이 크게 힘내어 온갖 公園發展計劃이나 植生研究에 熱意를 내게되고 調査의 正確을 期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筆者: 本會事務局長)